

▶ 의생활

21세기 패션디자인에 응용된 모네의 인상주의 색채

이 은 경*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교수)

시대적 정신에 부응하고자 패션디자이너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순수예술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즉 회화를 패션디자인과 결합시켜 융해된 예술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모네의 인상주의 색채를 고찰하고, 패션디자인과 어떻게 결부되어질 수 있는가의 연관성과 그 활용성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패션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네의 인상주의 색채에 대한 회화사적 배경과 의미, 표현양식과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회화예술에 있어서 순수한 정신적 근거를 찾고자 하며, 모네의 색채와 패션디자인의 색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패션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 창출과정에서 새로운 조형정신과 미의식에 의한 구체적인 의미에 접근하고자 한다.

모네의 색채 특성은 자연을 순간 순간 그 모습을 달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작품은 외광(外光)을 받은 자연의 표정을 따라 밝은 색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팔레트 위에서 물감을 섞지 않는 대신 색조의 분할이나 원색의 병치를 이행하는 등 새로운 기법을 개척하였다. 순간에 거는 그의 창조적 에너지는 생생하면서도 베일 속에 잠긴 듯한 색채진동 그 자체가 순간을 사는 날쌔 속에서 약동한다. 순색을 분할된 필촉으로 병치함으로써 광선의 하늘거림을 나타내는 기법 즉 색채분할에 의한 색조의 시각혼합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모네의 인상주의 색채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원풍의 로맨틱, 에스닉, 네추럴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즉 인상주의 색채 특징 중 하나인 윤곽선에서의 탈피는 순수한 색들의 병치로 인해 색채가 가지는 원래의 느낌이 아닌 옅고 부드럽고 파스텔풍으로 표현되는 색상으로 디자인을 우아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또한 순수한 색을 병치시킴으로써 미묘한 색조 변화를 보이는 기법이 현대 패션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이는 옷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모네는 순색들의 난무를 경쾌한 터치로 처리하였는데 이 색채들의 향연 분위기를 발렌티노 의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렌티노 의상은 색의 자연스런 농담 변화와 힘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또 샤넬은 흰색을 사용한 빛의 반사효과로 더욱 옅고 희게 보이는 효과를 잘 표현하고 있다. 갠조는 모네의 섬세한 장식적 구도를 파괴함으로써 선명한 색채와 빛의 효과를 더욱 밝게 현실적으로 표현하여 대자연과 대기현상을 독특한 회화언어로 표출시키고 있다.

모네의 인상주의 색채는 감각과 사고가 개인 빛과 색채를 주었는데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도 내적 심미성과 외적 색채에 재수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경쾌하고 속도감 있는 터치로써 관념적인 묘사를 단호히 배격함은 21세기 패션디자인에서도 색채의 자유로운 조화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모네의 인상주의 색채의 표현기법과 색채 특성들은 21세기 현대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컬러그래피, 색면추상 등으로 소재의 독창성 개발에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대패션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순수예술인 회화가 패션산업 발달의 흐름에 하나의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